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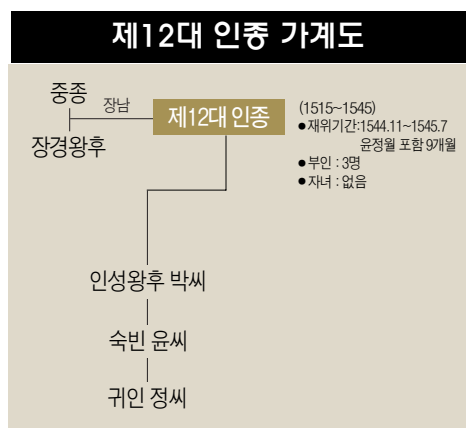
하늘이 내린 효자왕... 8개월의 짧은 治世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㉔

12대 인종과 인성왕후 - 효릉

인종 1515~1545(31세)
재위 1544.11(30세)~1545.7(31세)



인종은 조선조 제일의 효자왕이다. 하늘이 낸 대 효자라고 칭하고 있다. 정조와는 실체가 다른 극진한 효자다. 근엄한 군왕의 성품도 타고나지 못했다. 핏덩이 시절인 생후 7일만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김소하고 유약한 군주, 서툰한 살 한창 나이에 승하한 그에게 인종(仁宗)이란 묘호를 올렸다. 능호를 효릉(孝陵)이라 붙인 것도 지당하다. 왕위에 앉은 것은 고작 8개월 보름이다. 역대 조선왕 중 최단기간 재위했다. 부인을 셋 두었으나 자녀는 한 명도 남기지 못했다. 후사가 없는 왕은 6대 단종, 12대 인종, 20대 경종, 27대 순종 등 4명이다.

그의 효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버지 중종이 병 들자 여의가 울린 약을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번거로운 의관을 벗지 않고 손수 병수발을 했다. 병환이 위중해지자 대신들에게 종묘와 산전에 빌도록 명을 내렸다.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하고 분향하며 밤부터 새벽까지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렸다.

중종이 승하하자 옛세 동안 미음조차 들지 않았다. 다섯 달 동안 곡소리를 그치지 않았고 죽반 마시고 소금과 간장을 입에 대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려 나섰을 때 빈소를 지켰다. 정사를 전혀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군국에 관한 업무는 모두 대신들에게 위임했다. 초상 때부터 수척한 것이 극에 이르러 대신들이 고기를 먹으라 권해도 들리쳤다. 문정대비가 권해도 마지못해 드실 듯하다가 들지 않았다. 왕이 병약한 몸으로 친히 혼전에 제사 지내려 해서 문정대비와 대신들이 말했으나 "죽음의 신이 선왕을 데려가는데 자식된 도리를 못한 것이 매우 아프다"며 들지 않았다. 이때부터 병이 더욱 위중하게 되었다. <인종실록> 권2

인종은 중종과 장경왕후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여섯 살 때(1520년, 중종15) 왕세자로 책봉되어 25년간 세자로 있었다. 3세 때부터 글을 배워 익히고 8세 때 성균관에 입학해 학문하기를 즐겼다. 지극한 효성과 너그러운 성품으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력, 국가 통솔력에 대한 역량은 회의적이다. 금융적인 면도 두드러진다. 동궁에 머물 당시 옷을 화려하게 입은 궁녀는 모두 내쫓았다. 이런저런 연유로 부인을 셋 두었으나 후사가 없음을 금융생활을 집착케 한다. 그가 군왕이 아니었다면, 혁명을 국가시책으로 삼는 시대가 아니었다면 그는 출가하여 대덕이 되기에 넉넉한 그릇으로 여겨진다. 30대에 요절하는 비극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를 애석히 여기는 아사가 많다. 그를 기리자면 반동인들이 필요하다. 계모인 문정왕후가 그 역을 맡았다. 문정왕후 윤씨는 여러 차례 인종을 죽이려 했다. 세자로 있을 때, 그와 빈궁이 동궁에서 잠자고 있는데 뜨거운 열기가 번져 일어나보니 동궁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빈궁을 깨워 먼저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조용히 앉아서 타 죽겠다고 했다. 누가 불을 지른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계모이긴 하지만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하니 자식 된 도리로 죽여주는 것이 효를 행하는 길이라 작정했다.

"내 전날에 죽음을 피한 것은 부모님에게 악한 소



효릉은 조선 12대 인종(1515-1545)과 그의 비인성왕후(1514-1577) 박씨의 능이다. 인종은 중종의 맏아들로 왕위에 오른 지 9개월 만에 31세로 승하했다. 죽기 전, 이복동생인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과 반드시 부모의 능에 묻어주고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는 유교를 남겼다. 인종은 유교대로 어머니 장경왕후(현릉) 옆 언덕에 안장되었고, 효성이 지극함을 기려 능호를 효릉이라 했다. 인성왕후도 후일 인종 왼쪽에 비위두었던 왕비를 자리에 안장되었다. 사적 제22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4, 면적 21만 7701㎡(62만 5970평), 서삼릉 능역 안에 있다.

중종 승하 후 옛새간 곡기 끊는 등 지극한 효성 발휘

서른 한살 젊은 나이에 후사 없이 이질에 걸려 요절

문이 돌아갈까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밤중에 깊은 잠을 자다가 불에 타 죽었다면 그런 소문은 퍼지지 않을 것이니 나는 피하지 않겠소. 빈궁이나 불길을 피해 나가시오."

빈궁도 혼자서는 불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두 사람 모두 금방 불길에 휩싸여 타죽을 상황이다. 그때 밖에서 다급하게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백들이! 백들이! 어서 나오너라." 세자를 애타게 부르는 중종의 목소리였다. 상황이 워낙 급해 중종은 세자의 아명을 부른 것이다. 세자는 그 소리를 듣고, 불타 죽는 것이 문정왕후에게 효행이 되니 부왕에게 불효요 불충이라고 여겨 눈물을 흘리며 빈궁을 이끌고 불길을 헤치고 나왔다.

이 불은 누군가가 기름 먹인 솥에 불을 붙여 피리에 길게 매단 여러 마리의 쥐를 동궁으로 들여보내 지른 것이다. 중종은 방화가 아니라 한 궁녀의 실화라고 주장했고 세자는 불을 지른 범인을 색출하라고 명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넘어갔다.

즉위 후에도 인종은 문정왕후에 대한 효성이 변함 없었다. 계모이긴 하지만 자신을 키워준 은공을 갚으려 극진히 예우했다. 그러나 문정대비는 인종에

대한 증요를 거두지 않았다. 문안 인사물 오면, "홀로 된 첩과 악한 이들을 어찌 보전하겠소."

자신과 아들 경원대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종은 이 말을 듣고 송구함을 이기지 못해 아침부터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이는 대비전 밖 땅바닥에 오랫동안 앉혀 있었다. 입금이 석고대죄한 셈이다. 또다시 문안을 오면 자신과 아들 경원대군(명종)을 언제쯤 죽일 거냐고 대가리를 했다.

인종이 알아누워 죽게 된 것도 문정왕후가 내놓은 독이 든 다과가 원인이라고 아사는 전한다. 어느 날 인종이 문안차 대비전에 들렀다. 평소에는 돌 씹는 표정으로 막대하던 대비가 입가에 웃음을 흘리며 인종을 반겼다. 그리고 다과를 내놓았다. 왕은 난생 처음 자신을 환대하는 계모를 보고 기분이 좋아 아무런 의심 없이 다과를 먹었다. 그 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사는 독살설로 굳어졌다.

부왕 중종의 장례를 치르느라 몸이 쇠약해진 인종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약방제조들이 문안하면, "더위 증세가 조금 있을 뿐이니 문안하지 마라." "이제는 기후가 달하니 문안하지 마라. 이렇게 몹시

더운데 문안하니 도리어 미안하다"라고 했다. 심한 설사 즉 이질이 죽음의 원인이었다. 독살설은 문정왕후의 섭정 기간 내내 잔반 신세였던 사림파들이 은밀히, 끊임없이 퍼트린 소문이다.

인종을 앓두고 인종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내 죽거든 반드시 부모 곁에 묻고 장례는 소박하게 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옥좌는 경원대군 이환에게 전유한다. 경릉은 더욱 힘쓰고 도와서 내 뜻에 부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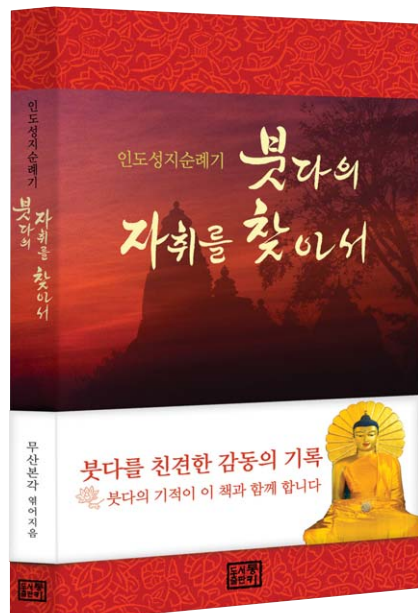
경원대군은 문정왕후의 친아들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는 처사이다. 문정왕후는 중종-명종 3대에 걸쳐 악역으로 나온다. 그의 행적은 비난 일색이다. 당시나 그 후나 입 가진 자, 붓끝 놀리는 자들에게 비난의 심사가 세습되었다. 당시의 권력 구도, 유럽들의 의식구조, 문정왕후의 송불 노력 등을 살펴보면 감정적 평가는 반성을 필요로 한다. 조금이라도 송불의 기색이 보이면 조정 대신들과 유생들이 별떼처럼 일어 나던 시대였다. 사림파의 이념인 성리학이 아니라 불교를 증중시키려하자 문정왕후는 비난과 음해의 표적이 되었다. 그 표적이 웅단 폭격이 퍼부어졌다.

성종, 연산, 중종조를 거처면서 박해와 황폐를 감내해야했던 불교가 문정왕후에 의해 겨우 기력을 회복하여 불력의 기운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그 기운 동토 가운데 지면 허약한 불꽃이었다. 절반의 성공도 못되는, 차가운 불꽃이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www.musan.co.kr (마음다기선원 홈페이지)

붓다의 향기를 좇아 미리 가는 인도성지순례



무산본각 엮어지음 | 13,500원

기원정사! 붓다께서 전 생애에 거쳐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던 곳. 그리고 수다라 장자의 아름다운 보시로 시작된 곳. 이곳의 기운은 평화롭고 향기로우며, 우리 일행은 첫 순례지에 발을 딛자마자 감동에 젖어 모든 여행의 피로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음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 땅을 밟았던 그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의 계획대로 전날 오후에 도착했다면 이 안개 자욱한 기원정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그곳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추어 도착한 것입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가는 버스는 마치 차원을 달리하여 달리는 것처럼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몇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뚫고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중에 오후가 되었고 인도국경을 어렵게 넘어 거의 종일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겨 뽀뽀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뽀뽀마 동산에 앉아 잠시 좌선하고 눈을 떠보니, 해가 저물어 가고 붓다께서 탄생하신 자리에 있는 무우수 나무는 티베트 승려들이 매달아 놓은 형형색색의 깃발들의 움직임 사이로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며 붉은 태양을 배경으로 우리가 오려던 길을 여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듯 마치 바위처럼 서 있었습니다.

인도성지순례기 붓다의 자취를 찾아서



무산본각 無山本覺 이우정 李有正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경북중·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과 주4미리 한국공사에서의 회장을 역임한 그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아반삼경목계성숙(阿含三經木界成熟)'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公案)을 타파하였으나, 곧 창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하여 호출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미타(Sarmita), 호와위 배씨나(Heonwon), 불을 함께 뛰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행은(Chigwan) 수행법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히 복원하고 체계화했다. 이로써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붓다가 가르침을 편 이래 2600여 년 만에 비로소 온전하고 참된 붓다의 수행법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그는 세속 일을 버리고 목포에 있는 무산선원(無山仙院) 마음다기선원에서 인연 있는 이들과 함께 수행하며 붓다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마음다기> (정신세계사, 1999)와 <붓다의 수행법> (유평터, 2007)을 짓고, <공파입니다> (버보세, 2004)를 엮어지었으며, <오직 모를 뿐> (물병자리, 2000)과 <오직 할 뿐> (물병자리, 2001)을 옮겼다.